

# 華嚴寺九層庵塔燈復原工事

申 榮 勳

華嚴寺補修工事設計에는 九層庵塔이나 石燈에 關한 內譯이 없었다. 工事中인 九月十一日 黃壽永監督官, 禹貞相教授, 鄭明鎬, 申榮勳調査員과 長韓建設의 鄭復永社長 一行이 九層庵破塔의 狀態를 調査하였다.

破塔은 初層과 上層基壇이 제대로 놓였을 뿐 其他塔材가 周圍에 散在하고 아무렇게나 쌓은 蓋石等이 塔身위에 重疊하고 있었다. 九層庵周圍를 돌아 보았다. 곳곳에서 塔材들이 튀어나온다. 대충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니 塔은 충분히 復原될 수 있겠다. 또 아주 우연한 일이 었지만 金索에서 石燈下台石을 發見하였다. 이에 자극된 一行은 부근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破塔材와 굴뚝 우물등의 돌더미속에서 屋蓋石, 中台石, 火舍石의 破片들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었다. 竿石이 보이지 않아 失望이었지만 一行의 기쁨은 대단하였다 (竿石破片은 厨房前돌더미에서 찾아내었다)



復原可能性이 甚은 塔과 燈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施工할 수 없겠느냐는 點을 討議하였다.

翌日 黃壽永監督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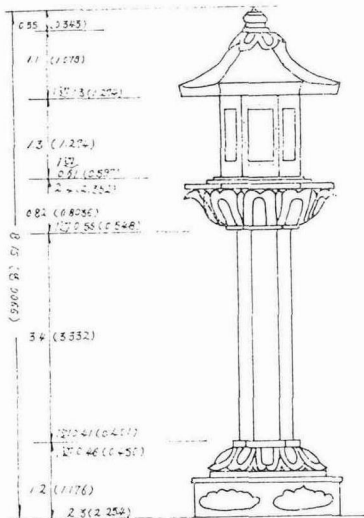
鄭復永社長 金千石 一行은 再次 九層庵으로 가서 石塔 石燈復原은 技術的인 면에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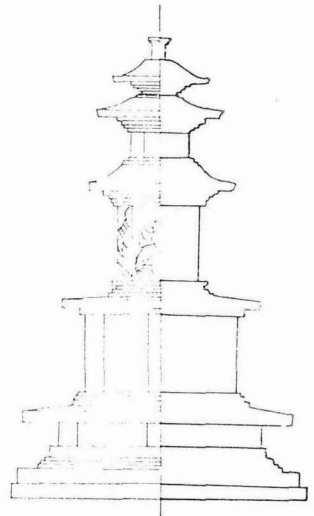
九月十九日 秦弘燮幹事 現場에 到着, 設計變更이 承認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에 覺皇殿 佛壇下에서 發見한 夫女莫斯瓦를 搬出하여 長韓建設에 引渡하고 覺皇殿前石燈補修工事가 竣工되면 곧 九層庵塔燈 復原工事に 着手하기로 合議하였다 (覺皇殿佛壇下에는 一九四三年度修替하고 九層庵塔, 燈復原에 必要한 金額을 入金을 中止 伊와代)

九月二十七日 石塔再建工事に 着手하였다. 이와 同時에 石燈再建造도 始作하였다. 鄭調査員이 住持室後庭岩上에서 發見하였던 竿石은 이 石燈과 關聯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깨어진 火舍石과 더불어 新造하기로 하고 治石을 시작하였다. 石塔과 石燈은 대체로 唐尺으로 만든 것이라 推定되었으므로 火舍石과 竿石의 規格도 唐尺에 따라 裁斷하였다 (一唐尺 〇·九八曲尺의 比率을 基準으로한)

火舍石은 破片이 殘存하고 더우기 높기와 幅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만들었다. 竿石은 中台石과 下台石의 竿石接合部에서 八角의 各邊의 길이를 찾고 높이는 火舍石높이의 三倍을 잡았다 (圖面參照) 石塔은 우선 解體부터 손을 대어야 되었다. 重疊한 蓋石을 내리고 初層塔身과 上層基壇甲石을 내리니 埋沒된 下層基壇과 地台石이 現出한다.

이제부터는 造立工程, 地台石을 表土와 그 높이를 같게하기 위하여 그





九層庵石塔復原圖

空間에 在來式 方法을 따르는 基礎를 하였다. 磨砂와 剛灰 雜石 粘土를 練土하여 메르다 지고 地台石을 水平맞춰 安置하였다.

下層基壇의 壁石은 從來 埋沒되었던 것중에서 성한것을 正面(南面西)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東南과 北西北東에 놓았는데 北東에는

解體時 發見된 破片으로 맞추고 北西側의 半破片은 手물에서 꺼낸 나머지 半破片과 합쳐 하나를 만들어 놓았다. 그 위의 甲石은 原來 二枚의 小片으로 깨어졌고 西面의 또 한 돌은 南側面部가 三破 北面部에 數多한 裂傷을 입었다. 心礎石에 의지하여 겨우 맞추어 놓고 보니 東北隅과 西北隅가 깨어져나가 모양은 없게 되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일이 쉽게 된 편이었다. 上層基壇의 面石을 맞추는데는 이들을 소비하여야만 되었다. 九層庵부분에 露出되어 있는 壁板石이 六枚 있었다. 우물물로 쓰여진 三枚를 빼어 놓고 보니 九枚의 壁石中에서 二枚를 使用하여야 좋은 지의문이다. 먼저 隅柱의 幅이 같은 것을 찾아내었다. 隅柱幅은 一定치 않으나 대략 四·五寸乃至 四·七寸程度의 것과 五寸乃至 五·二寸의 두가지로 나눌수 있었다. 이 두가지의 돌들을 높이와 폭이 같은 것들로 다시 分類하여 보았다. 이상하게도 九枚의 돌들이 二枚씩만 같을뿐 나머지 각각이다. 그러니 八枚는 높이는 서로 다르나 四組로 區分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것은 높이가 맞은것중 어떤것은 폭이 다르고 혹은 隅柱의 規格이 틀린다. 이튿날부터는 우선 第一後補石부터 작보기로 하였다. 앞과 左右는 그럴듯한데 뒤쪽돌을 잘아보니 영

틀린다. 모두 나리고 第二後補石들을 짜본다. 결과는 역시 뒤쪽에서 또틀린다. 짝이 맞지 않아 따로두었던 길이가 긴 나머지 한 돌을 갖다 맞추니 어쩔일인지 꼭 맞는다. 그제야 깨닫고 보니 甲石의 壁石 받침部가 前面은 짧고 後面은 길다. 上層甲石을 놓고 初層塔身을 安置하니 그이상은 순조로웠다. 三層은 塔身없이 蓋石만을 올려놓았다. 그 위에 露盤을 놓아 塔의 再建을 끝맺추었다(圖面參照)

塔은 九層庵法堂前庭에 南面西向하여 놓였고 初層塔身의 前面에는 如來坐像이 浮彫되었다. 舍利孔은 初層塔身上面 中央에 方形으로 鑿었다(深〇〇·三三尺) 初層塔身은 後面이 뒷돌 몫시 상하였다(寫眞은 復元된 石塔第一塔身佛像인)

資料

(華嚴寺)

一九六一年 九月 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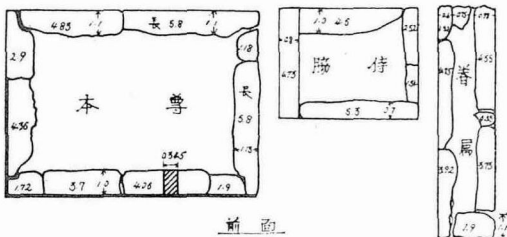
覺皇殿佛像臺石

石經을 佛壇下에 橫置하기 위하여 整理하던중 丈六殿 當時의 佛壇臺石이었으리라고 推定되는 一部份의 遺址를 찾아내었다. 位置는 佛壇下 中心部로부터 左右로 퍼진 구역이다.

遺構는 方形을 區劃하고 장대를 짜은 本尊臺座地를 中心으로 左右에 그 보다 작은 方形의 臺座자리가 있고 그 밖으로 東西行하는 長方形의 石壇址가 있다. 長方形의 壇址는 中央方形本尊자리와 이와 대략 같고 脇侍菩薩像의 臺座자리로 보여지는 方形의 길이는 前者의 約半에 해당한다(圖面參照)

장대를 짜은 수법은 평범하나 精緻한 솜씨를 잘 보이고 있다. 장대는 화강암을 썼다. 장대석은 크기가 일정치 않다. 좌우길은 바깥면으로만 하였고 위쪽과

鄭申  
明榮  
鎬勳



註: 本尊像 向하여 左側의 脇侍菩薩像佛壇址之有殘存 50cm 單位之

丈六殿 丈六像佛壇址平面圖